

웃둥 보살 빛둥 거사 <39>

구성 : 김흥인



영똥한 약을 먹은 사람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사람이 변비가 심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관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환자는 의사가 오기 전에 약을 먹고서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사가 그 까닭을 이상히 여겨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아까 그 관장약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너는 너무 어리석어 아무 방편도 모르는구나"라며 곧 다른 약을 먹여 토하게 했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선관(禪觀)의 갖가지 방법을 닦으려 할 때 부정관(不淨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수식관(數息觀)을 익히고 수식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육계(六界)를 관한다. 그리하여 위, 아래를 뒤바꾸어 근본이 없이 한갓 신명만 허비해 그 때문에 지치게 된다. 좋은 스승에게 묻지 않고 선법(禪法)을 뒤바꾸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경전을 구해오다 현장취경(玄奘取經)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현장 법사가 험난한 고생을 감내하고 인도로 가서 많은 경전을 구해오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서유기>의 삼장 법사로 많이 알려진 현장(603-664)은 중국 당나라 때 하남(河南省) 진류(陳留)에서 태어났다. 12세에 출가해 불경을 두루 읽어 깊은 뜻을 체득했으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고승을 찾아 다녔다. 하지만 의심이 풀리지 않자, 인도로 가서 불경의 원본을 구해 의심하는 것을 해소할 것을 결심하고 당태종 3년(629) 28세의 현장은 단신으로 장안을 출발해 인도로 떠났다. 함길, 고창, 구자, 반월천산을 지나 북인도 마갈타국의 나란다 사원에 들어가 계현(戒賢: 시라바드라) 스님 밑에서 불교 연구에 힘썼다. 이후 현장은 인도에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며 부처님 유적을 순례하고 불교 벽화와 조각 등으로 유명한 남인도의 아진타 석굴 등지를 유람했다. 641년 많은 경전과 불상과 사리를 가지고 귀국길에 올라, 힌두주의와 파미르의 두 협로를 넘어 호탄을 거쳐서 645년 정월 조야의 대환영을 받으며 장안으로 돌아왔다. 기간은 모두 17년이 걸렸고, 여정은 5만 리에 달했다고 한다. 태종(太宗)의 후원을 받아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한 이외에도,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을 저술했다. 현장의 험난한 여정은 본문에도 잘 묘사되고 있다. "고창국을 거쳐 돌궐국을 지나 계반국에 이르자 그곳에는 호랑이, 표범들이 많아서 더 앞으로 갈 수 없었는데, 현장 스님은 계책을 강구하지 못해



고려화백의 불교판화 <선학(玄奘)의 인도취경(玄奘取經)> 중 현장취경(玄奘取經) 판화(半幅) 27.2x18.0cm

좌선을 했는데 저녁때가 되어 문을 열어보니 한 노스님이 나타나서 현장 스님에게 <반야심경>을 전수해주고 의우게 했다. 현장 스님이 <반야심경>을 외우니 곧 산천이 평이해지고 도로가 개통됐으며, 호랑이, 표범도 형체를 감추고 마귀가 잠적해 마침내 부처님 나라에 이르렀다." 이 내용을 삽화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경을 헤쳐 나가는 여정을 명나라 때 오승은은 세계문화사에 빛나는 <서유기>로 탄생시켰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불법은 현장 스님과 같은 선각자들의 목숨을 건 구법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시가 있는 도량 ■ 새이

새들은 누군가 이미 낸 길은 가지 않는다.	뒗길음을 치지 않는다. 새들은 스스로 제 몸을 버려 가벼워질수록 더 무거운 짐을 풀 수 있음을 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날아 망막한 우주로 쉬임없이 지구를 끌고 가는 새. -오세영/월간<현대시화> 2009년 3월호에서
새들은 길 아닌 길임을 아는 까닭에 결코	줄도 매달지 않고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증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 (26시간)에 가깝게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건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